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88年（檀紀 4321年）1月 31日 第 129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崔在炫  
인쇄인 崔在旭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曜進東國 다짐한 새해 첫 인사



### '88년도 신년인사회 盛了

'88年度 新年人事会가 지난 21일 鄭在哲회장을 비롯한 母校 李智冠총장, 黃軫經이사장등 1백80여 명의 本회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東國과 겨레를 위해 새歷史의創造를 다짐하고 변함없는 友宜로 戊辰年 새해를 맞는 東國人. 그 가슴마다 가득한 雄志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활기찼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東國을 빛낸 동문들에게 축하패를 수여, 그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

(사진좌는 축하패를 받고 있는 朴埈亨본회 부회장)

# 진흥상호신용금고는 금고업계 최대의 자본규모, 유일한 상장회사입니다.



##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진흥상호신용금고는 항상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계 및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출에 문턱이 없는 진흥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시면 신속·간편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
  - 일반대출
  - 부금대출
  - 부금급부
- 어음할인  
 → 신용보증서 매출  
 → 가계자금신용대출

## 여유자금을 가지고 망설이십니까?

- 모두가 믿고 찾는 진흥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해 주십시오.
- 진흥상호신용금고는 업계 최대의 자본규모로 업계 유일한 상장회사입니다.

- 신용부금 (정기적금식) 연 14%
- 보통부금예수금 (저축예금식) 하루 연 8%
- 정기부금예수금 (정기예금식) 15.07%
- 세금우대 종합통장



모두가 믿고 찾는 번영의 터전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본점: 778-6611 (한국은행앞)  
영동지점: 545-3653 (강남구청앞)

# 雄志로 맞이하는 東國의 새해

## 88년도 新年人事會 개최

'88년도 본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 鄭在哲 회장을 비롯한 모교 李智冠 총장, 黃彥經이사장 등 본회 임원, 모교간부 등 1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부진년 새해를 맞아 踤進東國의 미래를 기약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에서 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동창회 발전을 위해 同門들이 물심양면으로 일어서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금년에도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것』을 당부한 뒤 7만 東國人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이어 李모교총장은『다가오는 출선에서 国會議원에 출마한同門모두가 당선되시길바란다』고 말했으며 黃이사장은『母校발전이 国家발전의 지름길이므로 東國發展을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신임인사를 대신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영진한 金惠基(61政治) 동문과 5천만 원 수출탑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朴浚亨(63經濟) 동문에게 축하배를 수여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2부 순서에서는 참석자들이 간단한 음료를 들면서 서로 신년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한 모습들이었으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友誼를 다진하기도 했다.

**東國愛와 氣象 달짐**  
각지회 新年 모임 러쉬

새해를 맞는 東國愛와 그기상이 충만한 신년모임이 각지동문회마다 활발히 열리고 있다.

송곡여고 재직동문회(회장=吳建一·64학번)는 지난 4일 오후 5시 망우리 용궁회관에서 회원 20여명이 모여 친목을 나눴는데 김병국(국교)회원의 결혼축하를 위한 논의도 있었으



▲鄭在哲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도 더욱 精進하는 東國人像의 성입니다 강조하고 있다.

며 이날 인창중·고등학교 재직동문회(회장=崔潤식·49문화) 회원 10여명이 모여 새해에도 변함없는 우의를 다짐했다.

제주지부(회장=康大元·51정치)에서도 지난 8일 탑동의 궁전회관에서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가지고 임원진 유임을 결정하는 등 새해동문회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정외과동문회(회장=朴翊柱·61정치·국회의원)도 지난 15일 한국일보 13층 특설홀에서 모임을 가

지고 임원진 유임을 결정하고 아울러 장학기금 확충안에 대한 논의를 갖기도 했다.

한편, 한일은행 동우회(회장=張誠·69상학·역삼동지점장) 회원 50여명은 지난 20일 쌍용스카이라운지에서 신년모임을 갖고 銀行내에서 가장 활발한 同門회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논의를 통해 본동우회 회장단 강화의 일환으로 새로 회부장직을 신설, 金善在(법학)과 鄭慈時(경영) 동문이 맡았으며 임원진개편에 따라 총무에 李殷

『앎으로서 사랑하고 사랑하므로서 안다』(知而愛, 愛而知)라는 예절이 있듯이 東國愛는 동문어려운의母校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本報에서는 동문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母校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東國人像의 정립을 꾀해보고자 합니다.

## 東國을 아십니까?

門學校라는 이름을 갖게된다. 1940년 모교는 그동안 불교만의 전통교육적 성격에서 벗어나 좀더 사회적, 일반적인 성격으로 폴을 넓힌 전문학교가 되고자 學科를 증설하고 惠化專門學校라는 새 단판을 걸었다.

그러나 일제말의 惠專시대는 민족의 설움을 함께 겪는 불행의 시대였기에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보다 높은 차원의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국가의 번영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1946년 9월 그 이름을 東國으로 바꾸고 惠化 폴리기아에서 수도 서울의 한복과 木葛川종허리로 터를 옮겨 새 국가의 인자를 양성하는 東國大學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明進學校는 中國古典의 「大學之道 在明明德」라고 한 정신과 佛典의 「精進·正道」의 뜻을 이어 新文化를 開明 또는 明進케하는 교육기관이 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후 佛教師範學校, 佛校高等講習, 中央學林, 佛校專修學校를 거쳐 1930년 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中央佛教專

甲(경영) 동문, 간사에 朴得坤(80경영) 金殷浩(82경영)洪石杓(82경영) 등분이 각각 맡게 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亂(戊辰) 年(庚辰) 10월 20일 회장단 강화의 일환으로 새로 회부장직을 신설, 金善在(법학)과 鄭慈時(경영) 동문이 맡았으며 임원진개편에 따라 총무에 李殷

으면 本會事務局(733-39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安海蘭(54국문)

P. 8 莊→海

▲朴浚亨(63경제)

P. 19 亭→亨

### ◇상무이사

▲宋實烈(57경제)

주소: 송파구 잠실본동 860

시아산수촌아파트 11동 502호

자택전화: 416-1136

사무실전화: 733-0070

▲洪思曰(60영문)

주소: 수원 매산로 2가 65-49

자택전화: 수원 5-6152

▲金漢局(61경제)

주소: 반포동→개포동

▲朴桂山(77원일)

P. 7 柱→桂

### ◇이사

▲朴壽哲(57입학)

자택전화: 포천→의정부

▲夏永泰(58법학)

P. 48 榮→永泰

▲朴珍秉(65경제)

자택전화: 556-6888

사무실전화: 542-1515

▲閔丙先(58원일)

P. 7 先→丙先

▲金在泓(60경제)

P. 6 弘→泓

▲朴翊柱(61정치)

P. 59 民主黨→民正黨

사무실전화: 784-3873

▲李周炯(65경제)

P. 81 농어촌개발공사→농수

산물유통공사

▲羅聖奎(65상학)

P. 82 신월동지점장→성수동

### 지점장

사무실전화: 464-6874

▲中東班(66산학)

사무실전화: 734-0051

▲宋進(76공경)

P. 101 사진예술원→아트스튜

디오

▲尹丙鉉(84경영)

P. 104 외한부→신사동지점

## 해외支部活性化에 힘입어 확대 재파악 계획-本會사무국

봄은 비록 멀리 있으나 마음 만은 항상 모교와 함께하고자 하는 해외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뉴욕지부(회장=任世昌, 58영문)에서는『송년의 밤』행사를 성황리에 갖고 뜨거운 東國愛의 아울러 발전을 다짐했

으며 현신적인 노력으로 동국을 빛낸 동문들에게 鄭在哲 회장이 축하배를 수여했는데 同지부동문들은 회관건립을 위한 사무국발전기금으로 5백불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또한 미시간동문회(회장=宋병운)에서도 정기모임을 갖고 우의를 다지며 동창회비 2백 40불을 보내왔으며 달리스동문회(회장=吳在官·71농경)에서도 墓회상의 텍사스주지사 자문위원 위촉 축하모임 등을 갖고 同지부 및 전체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本會사무국에서는 신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의 동문회는 물론, 새로 조직될 해외의 각동문회와의 보다 긴밀한 유대를 목표로 해외 소회원을 세파악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역은 내달에 발행될 本報 1백 30호(2월 29일자)에 게재할 예정이다. 해외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星友會 정기총회  
구립 26일 임원개편

星友會(회장=윤건수)는 구립 26일 을지로 백병원앞 파인힐에서 전회원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새로 개편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정윤무교수

▲회장=윤건수

▲부회장=서정률(부국상호신

용금고 총무부장)

▲감사=이기조(공무원)

▲총무=현혜천(성우기업 대표)

진주경상대 동우회  
구립 22일 창립회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재직 동우회(회장=洪鍾皓) 경제과교수)가 구립 22일 회원 22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및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상호친목을 바탕으로 同會발전 및 지역문화에의 기여를 다짐하였는데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洪鍾皓(경제) 경제과교수  
▲부회장=高미식(대원) 농학과교수  
▲간사=鄭孝웅(67경영) 회계학과교수

일

립

다음은 최근 제작된 회장과 부회장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내용이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이밖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



“世界속의 東國” 재확인

## 戊辰年을 맞는 우리네 다짐

## 思索의 廣場

해기 비셀페미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목은 해에 찌들린 삶을 새해에는 더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본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깊이 살펴보면 그 해는 끝 그 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양은 변화가 오지 않고 항상 넉넉하고 너그러운 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새해가 되었다 하여 다시 보내고 일 보내고 많이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사(平常事)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중국의 한 스님은 평常心은道라고 칠판에 아니하였는가. 우주법계에 있는 수 많은 星辰이 모두 평常의 움직이고 있으면서 放光하는 것이다.

올해는 戊辰해가 되었다고 사람마다 새 희망을 갖고 새롭게 살려는 마음다짐을 굳어 하고 있다. 좋은 일이다. 다짐처럼 좋고 기도처럼 수승한 것은 없다. 그것은 새로운 기도와 다짐이 아니라 학사하고 있는 다짐이요, 기도가 되어야 하기에 새해에 하는 다짐은 거듭하는 다짐이 되기에 좋은 것이라고 한다.

龍 해에 다짐하는 것은 용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함이다. 용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如意珠를 갖고 있다. 본시 용이란 것이 瑞物인 이 서물이 如意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한한 秘力이 内蕴되어 있음을 산진한 것이다. 사람이나 놀고 놀고 같이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뜻대로 되는 일이 바로如意한 것이다. 그런데如意하게 되도록 하는 구슬 이것이 무엇일까. 이 구슬은 무한동

력이 합장되어 있는 에너지기이다. 우주의 통일성, 행복의 열쇠, 운명의 실, 길흉화복이 모두 이 구슬에 담겨있는 것이다. 이것을 용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의주가 월등할 수 있는 88년, 이 해는 우리 민족에게도 웅지의 如意性이 발달할 것이요, 평화의 如意성이 만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88올림피아드 국민총선이 민주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라가 안정되면 사회가 질서위에서 나아가게 된다. 사회속에 질서가 정연하여지면 가정은 절로 편안하게 된다. 이러한 것

이야 말로 진정如意한 결과이다.

우리 東國도 이제는 如來의 如意性으로 발전하려고 한다. 본원적으로 살펴보자면 여래의 깨달음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리 바꿈할 경우 모든 것이 비틀어져 간다. 우리 대학은 如來의 自在性으로 환자본처하였다. 이제는 제자리에 온 사람이 正見을 갖고 보살행을 하여야 할 차례이다. 나라의 현실과 대학의 위상을 바르게 인식하여 상호발전시켜야 한다.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緣起現實을 자각하는 것이다. 동국은 학부적 연구와 사회적 응용을 동시에 전개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술적인 일들은 교수·연구를 심화시키는 길이고, 사회적인 기능으로는 의료·복지·문화등 봉사의 영역을 "나쁘게 활용시켜 가야한다. 이러한 일들이 如意하게 하기 위하여 同門과 宗徒와 대학인이 三者一如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 戊辰해의 우리는 韓國인으로 한 如意珠를 갖자. 大學發展의 마음이 하나되는 구슬을.

## 睦 槟 培

&lt;62불교·母校비서실장&gt;

## 東國이 준 특별 보너스

## 신년 맞이 同門수필

내가 東國大學校에 입학한 것은 1959년이었다. 대학생 활동 시작하면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불교문화사」와 「불교학개론」강좌였다. 영문과에 입학했던 이의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불교문화사」와 「불교학개론」은 솔직히 말해서 땀띠를한 강좌였던 것이다.

특히 처음 들어보는 사성제 육바라밀, 팔작도, 여기설등 어려운 한자어를 대할 때마다 아득한 생각이 들곤 했었다. 그 당시 그래도 학점을 제대로 딴 것은 박춘해 교수님의 명강의 덕택이었다. 부처님처럼 들을 환한 얼굴에 심금을 살피 웃으시며 걸직한 명강의를 들려주시던 그분의 고성이 아직도 확연히 떠오른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 전교생이 중강당에 모여 듣는 특강이 있었다. 학점과는 관계없는 그 특강은 당시의 총장이었던 白性都박사님이 직접 강의를 해주셨는데, 교과서를 펴들고 하시면 교과 강의가 아니라 말하자면 인생론 강좌였다.

출석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듣고 싶은 학생은 듣고 듣기 싫은 학생은 반드시 듣지 않아도 되는 백박사의 특강은 그러나 듣는 인기가 있었고 중강당은 늘 만원을 이루었으며 2,3층 복도에까지도 늘어서서 듣는 명강좌였다. 언젠가 한번은 빼박사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다.

『사내 자식들이 누구한테 뭘 좀 얻어먹을 수 없을까 생각하고 살면, 사람이 자연히 허리를 굽히게되고 두손을 비비게되고 비글해지기가 쉽다. 그러나 생각을 끊고, 보리밥 한 덩어리라도 남에게 주면서 살아라. 얻어먹고 사는 인생과 남에게 수면서 사는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때의 그 강의 내용을 고스란히 그대로는 옮길 수 없으나 대략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 그때 나는 웨일인지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무언가 알 수 없는 감동이 전율처럼 온 몸에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겸여 열색한 족풀이 미군작업복이 교복이었고, 하루에 두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채 섬북동 폐대기에서부터 학교까지 터덜터덜 걸어서 학교를 오갔



尹青光 동문

던 암울한 처지에 감히 남에게 무언을 주면서 살 생가운 해본 적도 없던 월부지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한 말씀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날 이후 나는 불교의 가

자연 허리를 굽히게 되고, 두 손을 비비게 되고, 입가에는 아침의 웃음을 지어야 하고, 세치 헛바닥으로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지껄여야 한다.

그러나 비록 보리밥 한 덩어리만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서 사는 사람은 허리를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고 아침할 이유가 없고, 두 손을 썹싹 비벼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엇이던지 엄을 생각을 하지 않고 줄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당당하고 멋진다 수 밖에 없다.

내가 왜 여기에 이런 소리를 쓰느냐하면, 東國은 나온 사람, 지금 東國에 다니는 사람은 어떤 다른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을 보다 한 가지 특별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학문을 연구,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東國에서만 접할수 있는 <불교와의 만남>을, 아마도 그것을 소중히 알고 제대로 민 소화한다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된다는 점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결코 극단적인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느 일본기업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불교의 가르침에 젖어

## 『보리밥 한 덩어리라도 남에게 주면서 살라』 시던 白총장의 짜렁짜렁한 목소리는 아직도 감동의 전율로 전해온다.

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개인을 하게되었고 그토록 지겹던 「불교학개론」의 유파리말 가운데서 보시비라밀이 바로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리는 뜻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되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석구석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롭게 사는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남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할 때, 방법은 딱 두가지 밖에 없다. 남이 가지고 있는 무언인 가를 얻어내려면 힘으로 그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 것으로 난들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빙붙어 비굴한 하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니

있는 사람들은 투쟁과 공격보다는 화합과 양보, 무한한 욕심보다는 보시와 회사를 더 중요시한다.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지 않고 남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겠는가?

지금 東國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은 東國만이 줄 수 있는 <불교와의 만남>이라는 특별보너스를 제대로 잘 받아 가지고 나오기를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그 특별 보너스는 두고 두고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더 없이 욕심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63英文·東國出版社대표>

##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

그것을 고려는 창조하고 있읍니다.



그려제이드  
대표 박찬대



# 愛鄉과 獻身으로 이룩한 순수모임

## 지역문화 發展에도 앞장서는 同門 많아

성회원들이 모였으니 회장인 내가 모임에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며 나날이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고 権회장은 털어놓는다.

### 동문화사무실 마련으로 회원 확대 파악에 주력

름에 깊이 뿌리박힌 전학이념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기자와의 마음은 한껏 뿐들하였다. [嬉]

◇회원명단

▲회장 : 権連玉 (74학원) = 해  
전문화교수

▲부회장 : 姜大鳳 (63생물) =  
삼화회관대표 李鎔謙 (71경영)

= 성신제재소장

▲총무 : 吉俊根 (62국문) 천안  
중교사

▲감사 : 金允院 (62국문) = 천  
안여성교사

▲이사 : 李鍾七 (63·정치) = 흐호  
상사대표 李鶴鎮 (국문) = 서울건  
재 대표 金순택 = 아우내중 교  
장 金春浩 (76 전기공) = 명전사  
대표



權連玉 회장

▲감사 = 金允院 (62국문) = 천  
안여성교사

▲이사 : 李鍾七 (63·정치) = 흐호  
상사대표 李鶴鎮 (국문) = 서울건  
재 대표 金순택 = 아우내중 교  
장 金春浩 (76 전기공) = 명전사  
대표

『우리에게 천안은 삶의 터  
전이자 정신적인 토양입니다.  
그렇기에 천안지회는 이 고장  
에서 뼈를 물고자하는 동문들  
로 그 어느곳보다 단단하게  
얽혀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문을 여는 権連玉  
회장 (74학원 · 혜전전문대교수).

각 지회중에서도 친목회는  
물론 재정적 기반들이 가장  
실속있기로 정평 (?) 이 나았  
는 천안지회를 직접 찾아보고  
서야 記者は 그 깊이를 실감  
할 수 있었다.

『우리로입이 돋득히 유지되  
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순  
수함」이라고 봅니다. 훈련을  
자신의 개인적인 실력을 위해 모  
임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를 보  
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  
이지요. 우리 개인의 지위나  
빈부에 관계없이 서로 만나 열

### 천안은 우리 삶의 터전 이며 정신적인 토양이죠



▲ 지난해 가을아유회에서 갑사의 철옹주지스님과 함께.

하는등 지역문화 발전에도 구  
게 기여해 왔다.

『회비없이 전회원은 스스로  
집여만 하면 되는 민주적인 모  
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천안  
지회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의 여력을 모으면 한  
3년이후에는 가능할 듯 싶습  
니다. 우리 각 지회들이 잘해

### 튼튼한 뿌리가 되어 동 창회 발전에 기여할터

야 궁극적으로 총동창회도 발  
전이 가능한 만큼, 가장 튼튼  
한 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의 뜨거운 관심과 희생  
정신으로 굳게 뭉친 천안지회  
의 모습에서 다시금 동문들가

▲ 일반회원 : 金虎善 (75 국사)

= 천안여성교사 고문현 (57법학)

= 교사 구본득 (62법학) 교사 권

오성 (54정지) = 과수원경영 김병

식 = 충청은행 천안지점장 김영훈

(68상학) = 코오롱스포츠경영 김

종백 (70 상학) = 아세아 자동차

천안 영업소장 김홍원 (81 식

품) = 한국 롱프랑 제약 김태

영 (70 식공) = 종암고 교사 박

승시 = 대한성공회 천안교회 백

승태 (60 정치) = 낙농업 신

원식 (63영문) = 조치원여고교사

김상진 (68국문) = 복일고 교사

손진웅 (63국문) = 낙농업 여운

정 = 병천지사장 유복현 (60 농

학) = 낙농업 유진복 = 한일페미

콘 윤창구 (64상학) = 해평양행

이명우 (63국문) = 복지여고교사

이석구 (64국문) = 병천고 교사

이용창 (85 철학) = 중앙일보사

이정호 (76경제) = 전인법원 이

창국 (77경영) = 로마네스크 임  
선국 (65법학) = 고덕중교사 조  
명환 (59농학) = 부일목자 경영  
정기섭 = 천안경찰서장 차용근  
(71상학) = 복일고교사 최영수  
최종섭 = 천남중교사 한치호  
(60국문) = 목천중교사 현봉주  
(68사회) = 건축업 홍용표 (71  
생물) = 중앙고교사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현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서병진 (61법학) = 마포구  
도화동 251-1 (근신빌딩 별  
관 202호)

▲ 이병국 (63법학) = 대전 중  
구 태평 2동 407 삼부 A P T  
23동 21호

▲ 이양주 (80사교) = 강동구  
명일동 주공고층 A P T 913  
동 1301호

▲ 조혁준 (82경회) = 강동구  
잠실동 장미 A P T 31동 10  
09호

▲ 김상제 = 관악구 신림 4동  
475-7호

▲ 정창호 (72경제) =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18-9

▲ 李泰揆 (불리) = 천안성정  
동 31-1 대우목화 A P T 2동  
302호

▲ 김경록 = 강원도 원주시 명  
륜동 265-2 대성고교장

▲ 許官植 (행정) = 경기파주  
군조리면 분일원 121

▲ 이용광 (경원) = 경북월성  
군 진천읍 조전 1리 261-10

▲ 송영인 = 경기 안양시 안  
양 1동 674-207

▲ 이제일 (60학원) = 중구 신  
당 2동 432-1860

▲ 권의종 (77무역) =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경제조사부

▲ 황찬하 = 관악구 신림 10동  
316-900

▲ 이영우 = 중구 충무로 3가  
33-4 경화빌딩 402호

▲ 양정한 (60법학) = 강동구  
둔촌 2동 517-5 33동 1반

▲ 경관현 = 영등포구 영등포  
2가동 139

▲ 최치열 (72경영) = 강남구  
대치동 고층 A P T 305동  
608호

▲ 박건장 (67식공) = 관악구  
신림 11동 미도 A P T 22동  
301호

▲ 유기동 (68경제) = 종로구  
창신동 436-65 대한민국공  
훈사

**선진 인쇄를 향한 우리의 도전과 자부심!**

SEoul 1988 Asian Games SEOUL 1988

서울특별市 中區 亭洞 2街 61-16  
TEL: 266-6323, 267-6313

## 國民勳章 동백장受賞



朴完一 동문



柳月誕 동문

朴完一(61불교·대한불교조계종전국신도회장)동문과 柳月誕(68불교·대한불교조계종종임종회 의장)동문이 지난 22일 「민족화합 민족통일촉진 국민대회」에서 통일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朴동문은 그간 불교청년회부회장, 전국불교신도회 사무총장 및同상임부회장등을 역임하며 지난 68년에는 불교잡지「法

輪」을 창간, 발행하는등 포교사업에 힘써왔는데 본회부회장으로도 통창회발전을 위해 많은 활약을 하고있다.

柳동문 또한 조계종총무원 총무국장 및 중앙종회 4·5·6 대 의원 불교신문사장등을 역임하면서 그 확산과 실천에 앞장서왔다. 또한 본회의 상무이사직을 맡아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 東國學院 監事로 선임



金龍模 동문



金界鎬 동문

金龍模(59경세·한국공인회세사회 부회장)동문과 金界鎬(법장·73원원·서평사주지)동문이 지난 30일 89회 동국학인사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

金龍模은 한국 공인회세사회 상임이사 및 同세부문과부위원장, 한국세무사 부회장, 대신회 계법인대표 등을 역임하며 회

세난제에서 많은 활약을 해왔다. 본회 상무이사. 또한 법장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미주지역 국제포교사, 대한불교 조계종정각원장(現), 광명경찰서 직장청소년 지도감사(現) 등 불교계의 요직을 맡아 종단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民和委員에 위촉  
徐廷柱 동문

徐廷柱 (35 불교)  
동문은 지난 11월 55 명으로 정식 발족한 「민주화합 주민위원회」(문화예술)으로 위촉되었다.

권위주의적 청산과 계층·지역·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및 구체적인 민주화방향성을 고려하여 『민주화합 추진위』는 차기 대통령 취임전인 오는 2월 24일까지 활동하게된다.

布教大賞을 수상  
觀應斯님

觀應斯님(38종불)은 구립 27 일 제 1회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44년 강릉포교당 포교사로 첫

발을 디던 후, 평생동안 충생교회에 전력을 기울여온 관응스님은 출가증을 위해서는 결륜이 깊고 오묘한 이치를, 재가신도에는 쉬운 내용으로 삶의 다른 指南을 제시하며 79년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한달에 20회 이상 설법을 하고 있는 「타고난 說法師」라고.

정년퇴임 논문집펴내  
李丙疇 동문

李丙疇 (50 국문·고교 대우교수)동문은 최근 정년 퇴임 기념 문집 「東岳漢文學論集」을 출판받았다.

李동문은 두보를 중심으로 한漢詩연구로 학계에 업적을 남겼으며 40여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후학양성에 많은 정열을 기울여 왔다.

## 최고 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 1,000만원 이상 만기 90일 이상

최신타자 투자 청탁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1-4491  
대 대 표 771-06

한국관광공사 실장  
朴鍾在 동문

朴鍾在  
(59경제)  
동문이 최근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장에서 조사 실장으로

로 영전하였다.

朴동문은同事에서 기획조정실장 및 총무부장들을 역임하면서 세계속의 관광한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本회이사로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 同門동정

연속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본회이사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 제 3회 不二賞 수상

정호영·이은덕 동문

不二賞 수상자에 정호영(대원) 동문과 이은덕(인철) 동문이 결정, 26일 수상했다.

同문은 연구, 실천, 강화 및 출가면학의 4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정진하는 佛子에게 수여되고 있는데 鄭동문은 연구분야에, 李동문은 강학분야에서 각각 그 노력성을 인정받아 수상케된 것이다.

바있워  
본사  
면분들의  
니다.  
언제  
近況  
라  
諸  
況  
이  
도  
신  
시  
提  
報  
이  
주

##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許弼國 동문



許弼國  
(60 영문)  
동문은 지난 14일 체신부 전파관리국장으로 영전 했다.

체신부 감사관, 부산 및 대구 서울등 체신청장을 역임해 온 승동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서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文公部장관상 수상

裴鍾大 동문



裴鍾大  
(62 국문)  
동문은 최근 잡지의 날을 맞아 文化公報部 장관상을 수상했다.

裴동문은 그간 優游集樂部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同紙를 통해 젊은 향토를 바탕으로 한 지방문화창달 및 친목도모에 기여해온데 本會 근로장학회 고문 및 안양 예고특성화장을 역임하며 후배양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도. 본회이사.

## 최고경영인賞 수상

丁炳樂 동문



丁炳樂  
(67 경행·  
금성 사무기기 대표)  
동문은 지난 5일 金星社에서 제정한 「최고 경영인賞」을 수상했다.

상품의 판매전략 및 효율적 경영력을 인정받아 同賞을 받게 된 丁동문은 이번으로 5년

## 오이씨관광 대표이사

孫賢秀 동문



孫賢秀  
(86 행원·  
대현 실업  
株 대표  
(이사))  
동문은 지난 18일 오이씨 관광(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현재 孫동문은 전국지하상가 연합회회장, 민정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대현관광(주) 대표이사, 아지산호인단체 출연합회회장을 맡고 있으며면서 각종단체를 통한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 현대화랑서 個人展

宋榮邦 교수



宋榮邦  
교과 미술  
교수는  
내일 4일  
부터 15일  
까지 강남  
현대화랑  
에서 개인  
전을 갖는다.

최근 수년간 전작해온 윤파선을 그리지 않고 수묵 또는 채색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물풀화법의 수목채화를 선보일 이번 개인전을 통해 옛터을 지키면서 새로운 미술을 더하고자 하는 宋교수의 소담한 정열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

## 지지물사 /開業

徐相哲 동문



徐相哲  
(80 공경)  
동문은 최근 「지지물산」을 설립했다.

同 회사는 고급핸드백 및 각종 가방류를 제조,

판매수출을 하고있는데 단체구입이나 국내외 총판제작등에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연락처 : 은평구 응암동 171-1, 355-2521~3

삼익악기(株) 전무이사  
金學政 동문  
金學政(64영문) 동문은 지난 1일 삼익악기(주) 상무이사에서 전무이사로 영진했다.

## 인사 이동

## &lt;치안본부&gt;

## ◇총경승진자

▲裴善(65법학·서울형사과  
지능계장)

▲金炯濟(70행정·경찰대학 경  
찰학과)

▲金瑞榮(73경행·본부 연구  
발전과)

▲全判溶(행원·서울서대문서  
정보과장)

▲李翰祖(행원원·서울충북부  
정보과장)

▲朴根行(행원·본부 교통지도  
과)

## ◇경정승진자

▲윤종욱 ▲어정수 ▲정종만

▲안기섭 ▲이문구 ▲한강택

▲정성모 ▲강영규 ▲이봉구

▲오경종 ▲장봉현 ▲박종한

▲김길배 ▲안승환 ▲노완섭

## ◇경감승진자

▲최종덕 ▲최서규 ▲권영남

▲윤동길 ▲구문경 ▲김학철

▲이화식 ▲이상현 ▲심건섭

▲이성재 ▲이호상 ▲이상원

▲김성관 ▲윤대표 ▲이종원

▲홍익태 ▲이종원 ▲양봉진

▲황성노 ▲양두환 ▲박관순

▲최계이 ▲이제영 ▲정혜룡

## &lt;한국투자신탁(株)&gt;

▲朴貞一(73경제)=국제부차장에서 충무로지점 차장으로

▲金鶴起(75농생)=서면지점 차장에서 영등포지점 차장으로

▲金永南(77경영)=대구지점 과장에서 주식운용부 과장으로

▲權五敬(79경제)=연수원대리에서 同과장으로

▲李丙權(80경영)=신촌지점 대리에서 주식운용부 운용으로

▲李康然(85산공)=동대문지점 대리에서 주식운용부 운용으로

▲徐석균(86경영)=동대문지점에서 수원지점 대리로

<이상 지난 23일자>



## 榮進轉補

▲宋祥鉉 (57수학)=주택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전주지점으로

▲俞永植 (61법학)=서울시 은평구 청시민국장에서 소속대책반 과장으로

▲韓相榮 (61정외)=성업공사 광주지점 차장에서 본사 업무 개선실장으로

▲尹天泳 (66농학)=서울고속 터미널(주) 기획조사실장에서 운영부장으로

▲張誠一 (69상학)=한일은행 장기각동지점장에서 역삼동지점으로

▲李連永 (70농학)=신용보증 기금 안양지점 차장에서 본점 영업 1부 차장으로

▲元忠淵 (71상학)=법한화재 해상보험(주) 손해조정부 차장에서 부부장으로

▲李連永 (70농학)=신용보증 기금 안양지점 차장에서 본점 영업 1부 차장으로

▲許文秀 (57경제·본회 감사)=구립 18일 동궁타운 예식장에서 2女 결혼.

▲張亨植 (60정치·본회 상무이사)=구립 29일 삼성동 무역전시관에서 長男 결혼.

## 現代公認仲介士 合同事務所

公認仲介士 金炯敏 (75경행)

가장

안전하고  
높은수익

土地투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 광장빌딩 304호

代表 549-8266, 549-8264-7, 546-2882

▲許文秀 (57경제·본회 감사)=구립 18일 동궁타운 예식장에서 2女 결혼.

▲張亨植 (60정치·본회 상무이사)=구립 29일 삼성동 무역전시관에서 長男 결혼.



&lt;34&gt;

## 夫婦同文

◇蔡洙永  
<65國文>◇吳明根  
<65國文>

## 역설의 美學이 곧 文學

입학과 출업증기, 그리고 콜 커풀로서夫婦의 인연을 맺은 蔡洙永·吳明根同門을 찾은 때는 戊辰年 새해 1월이 그 배부름을 다하면 29일로 그날따라 날씨는 포근함을 보여 밭길을 기볍게 했다.

지난 65년 母校 국문과를 졸업,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뒤 신광여고 교감직을 지냈던 蔡동문(現, 경기기 감사)은 不惑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에 대한 애착은 끝내 母校 大學院 국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르게 하는데, 이는 주위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부서운 정력의 詩人이다. 評論家로서의 능력을 보이게 된다.

경기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끝내며 78년 <月刊文學> 詩부문 신인상, 83년 <예술계> 평론부문 신인상을 각각 수상, 문단에 나온 후보 <율도국> (詩人の 집刊)을 네번째 창작시집으로 떠내 것을 비롯. <韓國文學의 距離論> (詩人の 집刊) <韓國現代詩의 色彩意識研究> (集文堂刊) <申瞳集 詩研究> (大一刊) 등의 평론서를 발간했으며 <웅시> <미래시> <瑞世樓> 등의 동인활동을 통한 문학작업으로 일찌된 지칠줄 모르는 길을 걷고 있다.

공동운명체로서 生의 喜悲哀樂을 함께 나눌수 있는 同門夫婦의 잇점을 들며 夫婦觀의 제 1 조는 <조화>임을 말하는 吳동문(現, 서울기계공고 교시)은

그 당시 여학생장을 지낼정 도보 활동열이 대단한 「인기 여학생」이었다 한다. 夫君인 자신의 원고정서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지라 무시못할 존재라고 웃으며 아래를 소개하는 蔡同門은 그러면서도 단둘이서 어행 한 번 변변히 떠나지 못한 미안함에 항상 아래에 대한 죄스러움을 느낀다고 공식발언 (?)을 하기도.

量, 增幅, 統性이 세기지를 文豪가 되는 조건이라 말하는 蔡동문은 역설의 美學이 곧 文學임을 강조하며 『文學은 혼자하는 작업이니만큼 외적요인의 충족요구에 앞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은 얼마나 文學에 대한 집념을 불태웠는가라는 自問의 시간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他大學이 갖지 못한 문학전통이라는 업적장난 재산을 활용, 밟고 뛰는 후배들이 많이 나와 후배들사이에 몸살 않는다는 선배들의 기본분들은 뛰어오르기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한다.

## 부끄럼세대에 反한 과감한 프로포즈

『그 당시만 하여도 男女가 有別할이 강조되면 때로 설불리 누구에게 접근(?)하기란 남의 눈이 가시처럼 느껴지던 시대였어요』 라며 그런 세태속에서도 夫君인 蔡동문의 의협심에 반해 있던 그 때가 회상되니 환하게 웃는 吳동문의 얼굴은 이내 홍조빛으로 물든다.

『미팅이라는 단어가 아직 생소하게만 들리던 우리는 「부끄러움의 세대」라 할 수 있지요. 在學中엔 말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거저 바라만보는 「유보자 遊戀人」으로만 대학생 활동을 했었어요』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吳동문이 다니던 제일은행으로 친구 결혼 청첩장을 들고 찾았던 것이 본격적 마나의 시작이 되었고 그 만남의 마침표는 마침내 「결혼」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 69년 9월에 결혼, 「예술인의 마을」이라 불리는 서울 남현동에 단란한 가정을 꾸민 蔡동문네외의 생활철학을 쉬이 각지게 한다.

『나+너=우리』

부동문답게 자녀들의 이름을 모두 순 우리말로 作名했다.

올해 대입을 앞두고 있는 장남이 크고 넓음을 뜻하는 「한」字를 써 이름하였으며, 장녀 역시 서울대에서 주최한 「우리말 이름짓기 경연대회」에서 뜻상을 수상, 당시 예쁜이들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새미」라는

가고 싶은 자유였지만, 그때마다 푸른 손짓에 끌려가는 허공을 배우고, 작은 것이 비워지고 애굽은 눈들도 비워지는 그 자리에, 봄으로 돌아오는 바람 한 줄기가 하늘을 채우고 있었다.

가는 길 먼 날 서러움을 다독이는 하얗게 반짝이는 마음

大學位相正립을 위해 다각적 同門참여 절실  
공동운명체로서 조화로운 同門夫婦

이름으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우내는 따뜻한 샘물로 항상 목마른 팔의 목을 적셔주는 생활자세로 생활하라는 부모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인 막내동이도 많음(千)을 뜻하는 「온」을 쓰고 있어 우리네 정신문화의 뿌리를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蔡동문네외의 생활철학을 쉬이 각지게 한다.

『나+너=우리』

내가 한 여자를 사랑했을 때 세상은 파도 일렁이는 바다였다.

그 옆에 가려는 때마다 높은 키를 세우는 파도는 들어

을 그리려 무지개 뻗어나오는 샘물에 얼굴을 띄우고 그릴 줄 모르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늘 깊이에 다리를 놓아 그리운 새까맣고 칠판 놓은 내 사람이다.

창작시집 <율도국> 중에서 吳동문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아내」라는 詩가 詩畫面에 응집실에 걸려있었고 그 다른 한쪽으로 또 하나의 색다른 애자 하나가 「나+너=우리」라는 글귀로 눈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어머니로 시작되는 수직적 명령사회에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로 지향되는 민주주의 수평사회로 환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도습이 우리집 가훈

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분단이 가져온 이데올로기의 양극中 한쪽인 한국이라는 사회속에서 삶을 멀리두고 母校가 불교의 특징을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범위 한 변화를 희하는 문제작용에 얼마나 생活力을 발휘하도록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곧 母校발전의 궁극적 모색의 길이 되리라 믿는다고 故부부 同門은 임모아 말해 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뜨거운 東國愛를 느낄 수 있었던 蔡洙永·吳明根동문과의 자리마련이었다. 【潤】

## "88년도 「東國人名錄」 주인을 기다립니다."

姓 名	한문 :	한글 :
생년월일	년 월 일	출신도 :
出身大學	大學	年卒業
職場名	부서 및 직함 :	
職場주소	전화 :	전화 :
自宅주소		
※본인은 東友會報를 지장( )자택( )을 통해 받고 싶습니다		

大學院 관계

(모교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碩博士과정 모두 記載할것)

碩士専工科目 :	修了年度 :
博士専工科目 :	修了年度 :
特殊 및 대학원 :	修學年度 :

## 7만 同門들에게 알림

本會 사무국이전과 함께 컴퓨터 도입에 의한 全동문의「동문카드 전신화」작업에 협조해주신 同門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本會 88년도 사업중, 4년마다 再編·保增하여 발간하는 「東國人名錄」의 편수작업을 위한 동문카드제작인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접수코자하오니 本회보의 예시란에 제시한 카드양식에 의거 정확한 작성은 한 위, 本會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낼곳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12층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先後  
클럽유감

母校がなを 위해 무엇을 해 줄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母校를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합시다.

정월의 매서운 날씨를 가슴에 안으며 처음 동악에 올랐을 때 텁번 캠퍼스는 마냥 음 써년스럽기만 했었다. 나의 마음처럼...

그려나 벌써 동악의 품을 떠나 사회에 거보(?)를 내리던지 어언 6년 시간이 흐를수록 모교의 품이 그리워지는 것은 비단 나 하나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왜나하면 그만큼 동악에는 동문들의 발자국과 척추가 남아있으리라 자부하기 때문이다. 더무기 훌륭하신 은사님들의 좋은 말씀 인상깊었던 행사들, 서로 아껴주던 친우들... 그중에 빛나거리를 석어보면 입학식이 끝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님께서 서문을 내와 수백만의 시민들이 여러분의 발아래 있다. 여러분은 앞으로 대학생을 4년동안 이들을 아래로 끌어보며 대장부의 뜻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웅지를 가지고 용맹정진하라는 좋으신 말씀으로 10년이 월신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두번째로는 학생회 간부일원으로 80년초의 격변기에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치루면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살찌우게 하는 좋은 경험을 쌓은 것이다. 그 당시 대학에서는 제일 짜임새있게 치루었던 행사를 전무후무했던 일진각까지의 사이를 대행진엔 부상자 속출하여 당황했던 일, 그외에도 짚음을 놓여들에 불살랐던 백상전등...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선배보다 나은 후배들을 맞이하고자 학생회 스스로 임시홍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던 일이다. 학생회관 수위설연 조그만 방을 하나 빌려 성적이 우수한 입시생들을 불러 우리 학교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 해주고 홍보를 하였고 저녁에는 식사도 거르면서 그날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일의 홍보방안을 모색하곤 하였다. 또하나 자

# 내 생애 또하나의 자리매김

랑스러운 일은 먼훗날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며 시작했던 장학기금 마련운동이었다.

학생회비를 절약하여 '모은 기금이 이제는 4천여만 원이나 되어 이제는 우리의 조그만 뜻이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도 몇몇 친구들을 만나면 가슴 뛰듯 한 바람을 이야기 하곤 한다.

누구나 느끼는 집이지만 고국을 떠나야 태극기의 봉기를 험하게 막보듯이 사회나 직장에서 동문들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

는 영원히 동국의 포근한 품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만큼 나, 동문, 후배들의 성장을 꿈 모교의 발전이요,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며 영광 이리다. 이 사내를 떠나 7년 반동문들에게 말씀드린다면『모교의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모교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합시다...』

김은호  
(82경행·한일은행 연수부)



게 따뜻함과 정다움을 느낀다.

그러한 면에서 나는 행복하기 그지없는 팀이다. 내가 몸 닦고 있는 우리은행에는 180여 명이나 되는 동문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문 모두가 어느 학교 출신 뜻지 않게 성실히 그리고 뚜룩히 일하며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깊은 뜻을 실천해가고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들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교수님과 후배들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어서인지 모르지만 쑥쑥 성장하는 동국을 느낄수가 없는 것이다.

진흙탕속의 민물처럼 우리학교가 혼탁한 세상의 훗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후배들, 출신생, 학교가 4위업체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흔히 말하기 쉬운 말로『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듯이 우리

다랗게 실렸던 퇴임하는 어느 대법원장의 인터뷰기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유신 말부터 80년대의 역사의 한 귀퉁이를 이루었던 자신의 대법원장 在任 시절을 한마디로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오늘과 회한의 연속이었다』고 대답했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歴史」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법원장이 현직에 재임할 때 저도 가장 중요한 대학의 3년을 보냈고 똑같은 「歴史」 속에

마름으로 부르는 민주주의로 5월은 그렇게 와서 저도 강히 역사와眞實이라는 단어를 뇌까리며 5월은 그렇게 갔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친구는『산자연여행』이라고 목놓아 외치는데 캠퍼스 한 구석에서는 포커판이 한창이고 친절한 교내 방송은『지금 교수님들이 출석을 부르고 있으니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지 말고 수업을 들으라』고 「출석」 부분을 유난히 힘주어 반복하고....

K兄! 혼란이었읍니다. 나는 과연 저를 어느쪽에 서야 하는지 정말 알지 못했읍니다. 굳이 편을 가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灰色人으로 살기에는 너무도 처절했읍니다.

폐배주의와 氣無主義, 무비판主義가 깃발하듯처럼 동악을 내리 깔고 있었읍니다.

K兄!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들과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었읍니다. 형이 늘 하던 말처럼 金洙煥은 사랑하지만 박민환도 좋아할 수 있다면 시대상황을 소주 한잔에 띠워 보내는 친구도 대모보다는 출석과 A학점이 더 급하다는 포커판의 진주도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만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읍니다.

서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도서관의 수많은 확실한 동료들, 바로 나 자신이 편입하고자 했던 소중한 대학 4년의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 했읍니다.

K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스스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내온 대학 4년은 혼돈과 압박, 절망으로부터 歷史 속의 한 존재로 자신의 「자리매김」을 위한 과정이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도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兄! 졸업은 미감이자 시작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젊습니다. 동악에서도 그했던 것처럼 가슴을 쪘고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후배에게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文科大 英文科>

## 會費… 1년에 1만원

협조를 바랍니다

###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 대로
- 해외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 ◇납부안내

- ①은행지로이용 납부
- ②전화주시면 방문수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거운 격려 속에 지난 2월 同窓會館 건립의 밑마팅이 털시무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 등 同窓會가 거듭 발전하고 있음을니다.

同門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관건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등 東國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會費납부에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자에게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장 나 화이트세이지 각종 연회를 전리하고 품위있게 치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만족스럽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언제라도 전화하여 주시면 예산에 맞추어 실속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 출장 서비스가 번거로우신 분은 원하시는 시설을 갖춘 프리미어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및 문의: 전화 771-2240 교환 7245-7249

서울프라자호텔

##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 모교 學室處長 대폭人事

母校發展을 위한 獻身的 노력 기대

모교 행정대학원장에 金仁鴻 (정외과) 교수가 유임되고 기획조정실장에 崔燦有 (화학과) 교수가 임명되는 등 모교 學室・處長에 대한 인사이동이 지난 26일과 오는 1일로 두 차례에 걸쳐 있었다.

임기 (2년) 만료에 따라 대폭경직된 이전 모교간부 인사 이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대학원장=金仁鴻 ▲경영대학원장=趙昌華 (회계과) ▲교육대학원장=金秉玉 (교육과) ▲불교대학장=蔡澤洙 (선학과) ▲문과대학장=崔永祿 (사학과) ▲이과대학장=洪致裕 (물리과) ▲법과대학장=韓相範 (법학과) ▲사회과학대학장=金鎮植 (정외과) ▲경상대학장=尹鍾安 (회계과) ▲농과대학장=金興培 (농학과) ▲공과대학장=南宣祐 (토목과) ▲사법대학장=邢基柱 (지교과) ▲예술대학장=全榮華 (미술과) ▲기획조정실장=崔燦有 (화생처장=李琰雨 (경행과) ▲총무처장=權奇愷 (불교과) ▲도서관장=宋錫球 (철학과) ▲박물관장=文明大 (미술과)

<1월 26일자>

▲이부대학장=田浩謙 (영문과) ▲비서실장=睦楨培 (불교과) ▲인문과학대학장=申鉉濟 (경주영문과) ▲법정대학장=朴準鶴 (경주행정과) ▲상경대학장=金首培 (경주행정과) ▲교무부장=張忠植 (경주고미사과) ▲학생부장=姜聲允 (경주기초학부) ▲경주도서관장=薛永基 (경주무역과) ▲박물관분관장=金英吉 (경주불교과) ▲교무처장=朴先榮 (교육과) <2월 1일자>

母校 교수 3名

精神文化研 자율운영 건의

李箕水, 楊奇悰, 文明大교수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근무했던 모교교수 3명은 지난 19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진로에 대한 견의서」를 발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전문연구기관으로 일관하여야 하며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다른 기능은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당국에



趙昌華 경대원장



金秉玉 교대원장



崔燦有 기조실장



李琰雨 학생처장



權奇愷 총무처장



睦楨培 비서실장

현재 정신문화연구원내부의 혼란과 진통을 종식시키는 횡기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견의서는『정신문화연구원

은 정치적 행정적 간섭없이 학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하며 이 연구원이 국학 연구의 중추기관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88卒業式 내달 26일 거행  
전체수석졸업 金敬玉씨

88학년도 졸업식이 내달 26일 (廣州캠퍼스 27일) 오전 11시 모교 운동장에서 거행된다.

鄭在哲본회회장과 黃鈞經재단 이사장, 李智冠교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이번 졸업식에는 博士 23명,碩士 201명(일반대학원 99명·행정대학원 24명·경영대학원 35명·교육대학원 43명)과 學士 3천여명이 학위를 수여받게 되며 수석졸업자 및 각문야 공로자에 대한 수상이 있게 된다.

한편, 올해 전체수석졸업은 4·

5점 만점에 4·3·7점을 받은 金敬玉(불교학과)씨가 차지했다.

## 始林 원고모집

### 慶州 교지편집위원회

모교慶州캠퍼스 교지편집위원회에서는 「始林 8집」에에란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중이다.

원고모집내용을 보면 詩(3~5편)은 원고매수제한이 없으며, 단편소설(1편이상)은 2백자원고지, 70내외의, 수필(2편이상)은 20내외의, 회곡(1편이상)은 1백내외의, 평론(1편이상)은 70내외의, 서평(1편이상)은 70내외의, 번역(1

편이상)은 매수제한이 없다. 한편, 채택된 원고는 내년 3월초에 발간될 始林 8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실험기구 기증

### 李鎮九·姜泰遠 교수

반도체제조장비와 물리학실험기구가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교 과학관 물리학실험과 반도체연구소에 각각 설치되었다.

모교 李鎮九(전기공학과)교수와 姜泰遠(물리학과)교수의 기증으로 설치된 이를 실험기구는 총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과대·이과대학생들의 실험실습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 3월 2일부터 각單大別로

모교 88학년도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이 3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예년과는 달리 각 단과별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신청, 도서관이용등에 대한 교육이 있게 된다.

며 마을을 다스리고자 한다』는 金군은 高校 재학시절에 「옥돌」이라는 문학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고.

평소 학교공부에 충실했던 것이 수석의 영예를 안겨준 것 같아서 입시를 두달 앞두고는 家長(노릇)까지 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의 대학설계를 묻자『목표에 훈들립없이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여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 받겠다』면서『씨클활동을 비롯해 각종 文化行事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알찬 포부를 밝힌다.

내성적이면서 자그마한 체구에 오늘의 영광을 안고 새 東國人으로 출발하는 金군의 앞날에 훈찬 박수를 보내며 을해로 의과가 신설된지 3년째나 되는데 반해 아직도 부속병원이 완공되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모교 당국의 병원설립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 東國發展에 이바지하는 醫師가 꿈

## —전체 수석입학자 金鎮九군



8년만에 부활되어 각 大學別으로 선지원 후시 협제도에 의해 구립 22일 실시된 88학년도 母校 신입생 입시에서 총점 4·85·7점 만점에 4·46·7점 (내신 1등급)을 얻어 전체수석을 차지한 金鎮九 (의과·慶州高) 군을 만나보았다.

『기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수석은 전혀 뜻밖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첫소감을 피력한 金군은 『이영광을 병환으로 요양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그동안 뒷바라지를 해주신 누나께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털어 놓는다.

中學校 때부터 일본에 뒤진 우리의 기술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오면서 기계공학도를 꿈꾸어 왔으나 최근 의예과로 진로를 바꾸게 된것은『그동안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醫術로서 사회의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이길을 택했습니다』라며『앞으로 사회사업에 힘쓰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인다.

高校에서도 출곧 수석을 다투었다는 金군은 이번 大學선택에서 주위의 서울진학 강요를 뿌리치고 母校 경주캠 페스를 선택한 것은 지방에 서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판단해 집에서 가까운 母校를 지원한 것이라면서『東國 80년사에 새장을 여는 醫大에 학장을 담당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소신있게 앞날을 설계하는 기염을 보였다.

『평소 책을 읽고 詩를 쓰

—

림

## 동문원고 모집

7만 東國家族의 代辭紙인 東友會報에서는 全 東國人과 함께하는 會報가 되고자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내용

\*詩..... 제한 없음  
\*隨筆..... 15枚내외  
\*同窓會發展을 위한 제언..... 15枚내외

### ◇제출처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보편집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 편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3-3991~3)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 桃園꽃집

화분·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25-2  
진양빌딩 3층 42호

## 신옹·친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환사육 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종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기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 자율적인 國學研究 보장돼야

## 「精文研 正常化」촉구한 權基종 동문

『우리가 까워와 샤트르에 대해 논하듯 외국인들도 徐廷柱과 黄寅元에 대해 이야기하고 元曉과 道溪의 사상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모교 李箕永, 文明大교수를 비롯 전국의 대학교수 26명과 함께 「韓國精神文化

학연구의 중추기관으로 하루빨리 제기능을 되찾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1년 정신문화연구원 철학연구실에 파견돼 1년간 근무한바 있다는 權基종은 「國學 연구목적으로 개원한 정신문화연구원은 韓國을 알기위해 찾아가야 하는 곳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면서 「순수한 전문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당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 연구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力說。

『國威宣揚을 위해서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우리의 우수한 文化·思想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民族文化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한 權基종은 앞으로의 國學연구방향은 歷史, 哲學, 宗教, 文學 각 분야의 연구내용을 전제적인 맥락에서 종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國學者로서의 자신의 소견을 피력했다.

최근 실시된 모교간부 인사



지난 모교간부 인사 이동때 충무처장으로 취임한 權基종동문은 앞으로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연구 뒷마리지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등을 역임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보좌를 맡은데 대해 정신·육체적인 부담은 물론, 학문적으로 큰 희생을 치뤄야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임기(2년)가 끝날때 평가받고 싶다는 權基종은 「자율적인 문부기 속에서 책임과 질서가 존중되는 學園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本會理事로 있는 權基종은 「훌륭한 모교가 되야 同門들이 궁지에 가칠 수 있고, 또 사회각계층에 훌륭한 동문이 많아야 모교가 발전한다』면서 모교와 동창회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앞으로 모교와 동창회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고.

마지막으로 權基종은 주요 음악회를 개최한 大學生들이 들어오고 나면 학업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며 「오늘날의 大學生들은 선택받은 인물들이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학문에 더욱 전진하여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스승이자 선배로서 오늘의 재학생들에게 충고를 잊지 않았다.

民族文化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여기에 학문연구의 자유를 강조, 非民主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權基종은 「오늘날의 모교행정 업무에 눈주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東國中興의 그날을 기대해 본다.」

【範】

## 民族文化의 國際弘報 시급해 학교운영엔 責任과 秩序존중

이동해 總務處長으로 취임하기 도 한 權基종은 「學事行政등 학교의 중요한 일은 기획실과 교무·학생처에서 하는 것이고, 학생은 그 뒷마리지에 최선을 다 할따름」이라고 겸손하게 포부를 밝혔는데 「앞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으며 강의실내의 백록이나 책상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의 날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細緻한 부분까지 미치고 있음을 느꼈다.

東大新聞社주간, 총장비서실장

## “신년인사회 盛況에 감사드립니다.”

### 시작이 좋으면 끝도...

○…회망찬 마음으로 맞이한 무진년 새해에는 本會가 萬事亨通할 것이 끌립없다는 데...

이유인즉 지난 21일에 있은 본회 신년인사회 때 많은 동문들이 바쁜 시간중에도 대거 참석해 東國의 빌전과 동문상호간의 건승을 기원했는데 지방각지에서는 물론, 日本에서 귀국한 동문까지 참석하여 말그대로 盛況을 이루었고,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올해 첫번째 행사가 잘 된 것을 보면 금년내내 본회에서 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라고 本 동同志회 확신합니다.

海外同門 재파악 협조당부

○…「이제 우리는 서로 헤

어져/공장에 생산에 또는 면 나리에서/…송진님새 절은 강의실 뒷자리에서/꽃잎이 지는 잔디위에서/우리



東同國大同種植物園

는 다시 만나고 있다」(申庚林)  
본회사무국에서는 신년사업의 일환으로 해외동문들의 확대재판에 중점을 기울여 東國과의 새로운 만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

### “모교간부인사…雄飛東國에 새날개”

서 이미 결성되어 있는 지부는 물론 현재 회원이 많지 않아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동문들의 연락처 및 투고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 회보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해외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本會와 유대강화 기대

○…東國 1백주년 영광을 향해 힘찬 거보를 내딛고 있는 모교가 새해들어 새단장을 하고 놓임없는 전진을 기약했다는 데...

최근 실시된 모교간부 인사이종제 중요한 자리에 출동하신 교수분들이 대거 임명돼 앞으로 東國발전은 물론 本會와의 유대관계도 더욱 강화되리라는 전망。

새날개를 달고 雄飛하는 東國에 행운이 깃들지어다.

## 新刊안내

### 「한국撰述佛書…」

高翊晋著  
高翊晋(69불교·모교교수) 동문은 최근 「한국撰述佛書의 연구」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사원중에는 아직도 많은 경판과 문헌이 흩어져 있으며 이 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佛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필자는 새로 발견된 자료집을 연구, 불서에 대한 인식제고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민족사학〉

### 「대학일기」

공광규著  
교과 인문과대학 국문과에 재학중인 詩人 公光규가 시집 「대학일기」를 펴냈다.  
이시대의 대학모습과 여성동을 통한 사회현실을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대학으로 진학한 한 시인의 목소리로 표현한 이 시집은 제국주의문화가 이땅에

법률하지 못하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천문학사학〉

### 「情報와 人間理解」

金光永著

哲學博士로 외교안보연구원에 근무하는 金光永(66哲學) 동문이 「情報와 人間理解」 증보판을 펴냈다.

과학기술적 지식과 정보만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내면적인 성실성과 도덕성을 외면하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이책은 「情報와 人間」 「哲學과 人間」 「사이버네틱스의 認識論의 意味」 등 3부로 나뉘어 있다.

〈新學社刊〉

### 「하늘보다 먼곳...」

文貞姬著

詩人으로 활동중인 文貞姬(70국문)동문이 자신의 7번째 시집 「하늘보다 먼곳에 매인 그대」를 펴냈다.

이 시집에는 나이40에 접어든 중년여인의 감수성과 삶의 일상을 보여주는 최근작 60여 편이 담겨있다.



現代自動車(株)

HYUNDAI

###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 “그렌저” 판매개시

판매과장 : 柳在善  
(70경동·ROTC 8기)

TEL 274-3103~7  
야간 914-6584

2,000CC  
2,400CC  
3,000CC



대우자동차(株)

### '87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살롱·수퍼살롱)  
월드카 르망시리즈(GSE·GTE·레이서)

TEL. 540-4740(직)  
(야간) 487-7539

판매과장 : 崔鉉石(74연영)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B/D 1층)

### 西独 보수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 출력증가/수명연장

적용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 洋陽商事 (대표 :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파트서비스 244

### 信一金属센터(株)

활동판·銅파이프·비철금속 일체

내표이사 金鍾葉(84경원)

본사 :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51-3

266-6662, 265-3258

지점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924-6662, 924-6363

### 世進家具工芸店

TEL :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외)

■ 사무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 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 경영)

洪性裕 人生劇場

# 將軍의 아들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역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제5,6권 연속 출판!**

**홍성유** 인생극장 〈상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 진진하게 펼쳐 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임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전개, 갈작한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첨제이며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악까지의 배짱과 뻐았기 땅에서 주역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꿈꾸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애심적으로 써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알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을본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숱한 사람 들이 땅을 강탈한 일본 야구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령뱅이, 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전6권·국판·각권 300면내외/각권 값 3,300원 \*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재회의 기쁨—  
노스웨스트가  
운항을 재개합니다.**

노스웨스트가 1월부터 한·미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7대 도시로 가실 분들은 저희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으로 전화와 주십시오.  
노스웨스트는 서울과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씨애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및 호놀룰루뿐 아니라 미국의 20여 도시로 이어지는 편리한 노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데 대해 심痛한 사과를 드리며 한국의 승객 여러분을 다시 모시게 되어 무관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스웨스트로 오십시오.  
재회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약전화: 734-7800, 735-8500

**NORTHWEST**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